

고은 불교대하소설

어둠 속의 벽화

막

고을 북대실에는 여러개의 횡행 그림이 있다. 매캐한 묵은 흙냄새가 짙다. 지난 날 동서의 승려들이 모여들어 수행과 기도 그리고 역경에 열중한 때에 한 사람이 밤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꽤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동서가 만나는 이곳 등항 일대에는 구도승과 전도승 그리고 신도들이 많이 모여들어 마치 은성한 장시(場市)를 이루는 듯 하였다.

한(漢)의 시대를 지나고 수·당에 이르는 동안 이 마고굴 승원에는 로마인이나 터키인까지도 불교에 귀의하여 한 것 고즈넉한 산승이 되어 명상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므로 멀리 등으로는 백제 신라와 일본에서까지 뒷명씩이나 이곳에 와 공부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인도승이나 서역승도 이곳에 와서 경승을 마친 일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곳은 중원땅에서도 멀고 먼 변방이거니와 돌아갈 수 없는 오지로 여기고 페르시아에서도 멀리 떨어진 변방이거나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여기지만 이곳이야말로 그런 통과 서에 대해서 실제로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의 불교는 매우 독자적이었다. 이슬람권 나라마다의 황실이나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 밖에서 자유분방할 수 있었고 이곳의 승려들도 이 일대의 군소국들의 경쟁적인 완충지대가 필요로 하여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의 살법도 훨씬 권력에 대하여 의존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부터 이곳 불교는 다만 장엄한 암굴사원을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해마다 난만하게 피어나는 연꽃호수에서 어느새 갑자기 연이 피어서 돌아나지 않는 것과 같이 처참한 노릇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오랜 전쟁에 시달린 나머지였는지 모른다. 전쟁에 따라 이 일대를 주둔하는 쪽이 자주 바뀌는 일이 아닐로 대이상 이곳의 불교가 그 맥락을 잃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전쟁 다음으로는 사막의 변동에 의해서



74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데 그 원인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이 찬란한 하루하루로 발전하고 있던 마고굴의 시대가 언제부터인가 폐허와 텅 빈 동굴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이래 실로 천년 이상의 세월을 지난 뒤에 도리 일행의 강도집단이 수행자로 변신함으로써 지난 날의 그림자를 새겨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세상사람 모두에게 잊혀졌던 것은 아니다. 이따금 지난 시대의 사막 통로를 찾다가 길을 잃고 사경(死境)을 헤매던 나그네가 격과 다름 없는 마고굴과 월야현의 비경(秘境)에 이르러 살아남 수 있었던 몇사람 중의 장사꾼이나 손레자가 없지 않았다.

실지로 위그르족의 몇 점은이름은 꿈속에 이곳이 나타난 뒤 그 꿈에 의존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 분간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나 그가 그의 딸겨지를 이끌고 이곳을 목적으로 해서 오게 된 일도 그 자신의 결단만이 아니라 어린 영혼의 유도(誘導)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모른다.

아찔거나 그들은 오래동안 비밀에 싸인 이곳에 와서 이제부터 이곳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러나 며칠사이에 이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좀더 재빨리 쉬게할 작정이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위한 장례식을 법회의 형식으로 치러낸 뒤에 도리는 그 대중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맡하게 된 것이었다.

장례는 수만버들이 우거진 월야현 밖의 사막 한군데의 모래무덤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런 뒤 사람들을 마고굴 입구의 절벽

“북대실이아말로 세상을 구제하려 갈 도량입니다 바다와 사막이 내는 저 파도소리가 부처와 보살을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허한 친화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 북대실이아말로 장차 큰 인물이 나와 세상을 구제하려 갈 도량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라며 한없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잊지기 부처님께서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세상을 구제하려 오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기 위해서 파도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녕...?”

“물리지요? 파도소리가... 끝없는 바다와 사막에 한데 어울어져 내는 파도소리가... 저 소리가 부처와 보살을 부르는 소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 귀를 기다들은 죽 굴 안에서 멀리 멀리 파도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굴 밖의 사막에서 만들어진 소리의 중합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귀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허구(虛構)인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그들이아말로 어떤 구제를 바라는 염원이 마음 깊이 솟아나는 것인지 모른다.

합두가 도리에게 물었다.

“도리님께서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넌지시 던진 이 질문은 합두의 전생 무욕도에 대한 기억을 다시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과연 불이나 합두는 적어도 전생 몇생

숨겨둔 별천지 마고굴에는 침묵을 요구하는 어떤 힘이...

하나같이 합부로 그 발견한 바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야 하였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세상에 알리는 일 자체가 엄청난 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고굴에는 최소한 사람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 인적이 끊긴지 오래된 폐허로써의 동굴에 대해서 사담들은 왜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 굴의 웅장한 벽화에 그려진 여러 경전의 이야기들 그려진 번상도(變相圖)나 굴 안의 엄청난 조형물로서의 불보살상을 본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곳 부처님을 보았다는 것을 떠들어대면 나는 바로 버려질 것이라 물어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지만 내 입으로는 이곳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되지. 안되고 말고...”

“...아무래도 이 어마어마한 곳을 세상에 알렸다가는...”

“이곳이야말로 천만년이 다하도록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숨겨둔 별천지이다.”

이슬라텐 도리가 인젠가 꿈인지 생사인

곳의 굴벽이나 절벽이라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절벽 위의 모래산이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이 파멸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르 한낱에도 어두운 굴실 안에서 사는 회미(灰米)처럼 보이는 굴실 안쪽의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만으로도 일사리 친해질 수 있는 의경스러운 대상이었다.

만화와 불이 그리고 합두는 각각 독방을 쓰게 되었다. 굴이 독방은 배정될 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북대굴 안에는 세개의 독거승방 이외에도 빈 곳이 아주 많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합두합도의 장소인 방담이나 대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방도 빈 상태였다.

도리가 북대굴에 들른 것은 이곳에 도착한지 4일만에 전원 30명을 굴밖으로 불러내어 정식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한 뒤였다.

그는 오랜 사막의 여행 때문에 지친 사람들을 쉬게 쉬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기만 하였다.

아래에 집결시켰다.

“한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상관없는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공부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잠 자고 싶으면 잠을 싹껏 자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만 잔다는 것도 또한 하나의 지옥일 것입니다.”

“...?”

“그렇다고 잠을 못으며 명상이나 요가에만 온몸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기도와 염불만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잠 자고 싶으면 잠을 싹껏 자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만 잔다는 것도 또한 하나의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뜻에 맡길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라... 이곳 어둠의 동굴이 굴이 싫다면 어

디로든 떠나도 좋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도 속박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을 떠난 사람이 이곳에 관한 얘기를 한 토막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 얘기를 한 사람은 사름 안으로 죽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궁극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거쳐하는 남대굴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

“앞으로 음식은 하루에 아침과 점심 두 번이고 저녁은 먹지 않는 1일2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옷은 밧줄 양면에 사람이 보냈으니 그곳에서 지어 올 것입니다. 침구나 담요를 뜯파 따위도 다 맞춰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도리의 시중을 들던 젊은 부하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도리의 의도는 착각 실현되는 셈이었다.

그런 도리가 집회를 끝내고 사람들이 각자 제 거처에 돌아간 뒤에 북대실로 찾아온 것이다.

어느덧 그에게는 강도집단의 새 두령이 기보라는 수도원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경건성과 함께 어떤 감제도 내관개친 걸

에 대한 기억은 가질 수 있을 만큼 심식(心識)이 붙었다. 그것은 유식(唯識)의 제7식 제8식의 어느 경지에 다가갔던 공부의 결과일 터이다. 바로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가 여부는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도리가 별 뜻도 없이 대답하였다.

“아무리 이곳이 바다를 모르는 세상일 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중생이 바다에서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짐승이 바다 밑 용왕을 삼키는 고기였던 적이 있을 것이요 그런 고기를 잡아 물리는 어부가 되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합두가 오랜만에 약간 젖은 눈을 빛내면서 다시 물었다.

“삼에서 사신 적도 있으셨지요?”

“그렇겠지요. 바닷가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열세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 고기잡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에서 몇사람이 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합두가 불이 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잡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희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광고 ● 개인엽서 ● 불교관련광고 ● 불교관련소식 ● 지역별 ● 인사 ● 각종행사 ● 신상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사에 의해 기사 분기, 취재 및 사진 촬영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최후교정·지압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최후교정 전문 교육 ● 정장수 ● 건강연구원 ● 입구점 ●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60년의 역으로 범종구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공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례 모습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동 3-11 (02)733-6141 (서울사무소) (0331)283-2083(경정)

조림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싱글

전화 (053) 742-7855 015-717-7792 011-532-8454

(주) 신 화 개발

조림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싱글

전화 (053) 742-7855 015-717-7792 011-532-8454

(주) 신 화 개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형방지제 (갈라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 방충)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올림픽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입신상의 이유로 후 임자를 찾습니다.

● 위치: 봉대문구 장안4동 ● 법당: 50평, 시설 일체 완비 ● 연락처: (02) 245-0904 ● 운영 즉시 협의 가능합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삼일(대인사) 대좌불상 ● 승려(대인사) 대좌불상 ● 대승(대인사) 대좌불상 ● 대승(대인사) 대좌불상 ● 대승(대인사) 대좌불상 ● 대승(대인사) 대좌불상

대진(진승)공예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동 3-11 (02)245-0904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회 실시 4월·8월

회원모집중 결성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일제 불어권 제1차 「강화실용교재」 ○ 국고수입시 「강화 독음」 학습 ○ 학기별 1:1 「담당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합격 특급 가능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등록료 0 (영·수) 「비디오」 「교과서」 「필수문헌」 「합격보장」

입학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동 3-11 (02)245-0904

문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